



해외양돈뉴스



※미 국

3월 돼지고기 생산량 1.5% 증가

미국의 돼지고기 생산량이 소폭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미 육류수출입협회에 따르면 3월 돼지고기 생산량은 84만4천여톤으로 전달 74만4천여톤 대비 13.4% 많았으며 일년전 84만8천톤에 견줘서는 소폭 줄었다. 이처럼 3월 생산량이 작년보다 감소했지만 1, 2월 생산량이 작년보다 많아 3월말 돼지고기 생산량은 245만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41만3천톤에 비해 1.5% 가량 늘었다. 도축두수는 920만마리로 2월 812만두보다 13.3% 많았으나 지난해 동기 923만두에 비해서는 소폭 줄은 것으로 집계됐다.

돈육 수출 FTA 진행으로 10여년만에 5배 늘어

수입자유화로 인해 미국의 돼지고기 수출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관련업계에 따르면 미국은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출범 이전인 94년 20만톤에 불과했던 돼지고기 수출이 주변국과의 FTA 진행으로 100만톤 규모로 5배가 급증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정찬길 건국대 명예교수는 "미국은 1994년 NAFTA 협정 이후 우루과이라운드, 러시아 돼지고기 TRQ, 2004년 호주와의 FTA 진행 등 많은 나라와 무역장벽을 없앤 수입자유화로 미국 내 돼지고기 수출에 호황을 가져왔다"고 풀이했다.

※일 본

1분기 돈육 수입 증가

일본도 돼지고기 수입이 증가했다.

최근 관련업계에 따르면 1분기 일본의 돼지고기 수

입량(통관기준)은 19만톤으로 지난해 동기 17만7천톤에 비해 7% 가량 증가했다. 이 가운데 냉장 5만5천톤, 냉동 13만5천톤으로 06년 1분기 대비 각각 3.6%, 8.5%가 늘어 냉동의 비중이 다소 높아졌다.

국가별로는 미국 6만8천톤, 덴마크 4만2천톤, 캐나다 3만9천700톤, 멕시코 1만1천톤 순으로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의 경우 일년전보다 15%, 10%, 10.4% 각각 증가한 반면 덴마크는 3.5% 가량 줄었다.

녹차 카테킨 성분, 자돈설사에 효과적

차 잎이 돼지 설사를 줄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일본 농업신문에 따르면 동경도 농림종합연구센터는 자돈 사료에 차 잎을 섞어줄 경우 항균성 사료 첨가물을 사용하지 않아도 설사를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사실을 연구를 통해 밝혀냈다는 것이다.

이는 차 잎에 들어있는 카테킨 등이 정상 작용을 하기 때문에 건조 차 잎을 잘게 썰어 사료에 1% 섞어 4주령에서 12주령 돼지에 급여한 결과 설사 발생률이 낮아졌다고 연구센터는 설명했다.

※호 주

양돈 발전 가능성 미미해

최근 농촌경제연구원은 '호주, 축산물 수급전망'을 통해 2011~12년 돼지 사육 두수 감소로 돈육 생산량이 감소하나 돼지고기 수입이 늘면서 돈가는 오히려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호주의 암돼지 사육두수는 2011~12년 28만두로 07년보다 5% 가량 감소함에 따라 돈육 생산량도 35만5천톤으로 금년대비 5% 줄 것으로 내다봤다.

이런 가운데 호주 달러 강세와 미국 캐나다 등의 수



출 돈육 가격 하락으로 수입량이 크게 늘어 올해 예상 수입량보다 23% 많은 10만7천여톤의 돼지고기가 수입될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돼지고기 가격은 금년 2달러65센트/kg보다 24.5% 떨어진 2달러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됐다. 한편 돼지고기 수출은 생산량 감소와 미국 캐나다산 돼지고기 가격 하락으로 계속 감소, 2011~12년 3만3천톤으로 06~07년에 견줘 21%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 중 국

돼지고기 값 폭등 연말 대비 16% 올라

중국의 돼지고기 값이 사상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최근 외신에 따르면 중국 산둥, 지난, 장쑤, 난징 등 대부분의 성시지역 돼지고기 값은 지난해 12월 대비 16% 이상 오르면서 사상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산지역의 경우 12월 돼지 갈비와 등심 가격이 500g 기준 24.2위안, 17위안이던 것이 최근 28위안과 20위안으로 각각 15.7%, 17.6% 상승했다고 외신은 전했다. 또 창사지역 역시 돼지고기 평균 가격이 19위안으로 10년만에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돼지고기 값이 크게 오른 것은 질병으로 인한 출하물량이 감소한 영향으로 풀이되고 있다. 또한 사료 값이 오른 영향도 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중국 당국은 당분간 돼지고기 가격이 이 같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 전역 PRRS 확산으로 5천778마리 강제폐기

중국 농업부 수의국장은 지난 6월12일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PRRS)이 중국 전역 22개 성으로 확산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전국 22개 성 289개 농가에서 4만5천858마리의 전염돼 1만8천597마리가 폐사, 5천778마리를 강제폐기했다. 지난해 100만마리 이상의 돼

지가 고열병으로 폐사, 외신들은 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2천만마리 이상이 폐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5월 발생한 돼지들의 고열병 전염 바이러스가 PRRS라고 규정했지만 다른 바이러스가 고열을 유발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지난 4월 이후 많은 지역에서 돼지고기 값이 공급물량 감소의 여파로 20% 이상 오르는 등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돼지고기 가격 안정 조치 착수

중국이 연일 돈가상승과 공급물량 감소로 여러 가지 조치사항을 취하고 있다. 사료값 인상과 폐사로 인해 공급량 부족과 수급안정을 위한 대안으로 양돈농가 보조금 지급, 사료수출 금지, 시장가격 감시감독 등 여러 가지 정책을 내어 놓고 있다. 이러한 대안의 기대효과로는 중국내 옥수수 가격안정으로 농가의 부담축소와 보조금 지급을 통한 모든 사육두수 증가 유도, 시장가격 왜곡 행위 방지 등을 기대하고 있다.

※ 대 만

육류 안전성 대폭 강화

대만이 육류의 안전성 강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최근 타이베이 aT센터에 따르면 대만은 재래시장 현장 도살 금지 입법예고를 통해 '08년 4월 1일부터 재래시장에서 가축을 도살하거나 그 육류를 판매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키로 했다.

또한 이를 어길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동시에 육류를 안전하게 보관, 유통시킬 수 있도록 재래시장 육류 판매상에게 냉장·동 및 진공 포장 기계 구입을 보조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만 행정원은 가축 도축 과정에서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 도살 센터에 육류 품질 전문 수의사를 배치키로 했다. **양돈**